

#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유나영\*\* · 이기훈\*\*\* · 마강래\*\*\*\*

## Factors Affecting Residents' Propensity to Stay in Their Current Residence: Focused on Aging Effect\*

You Na-young\*\* · Lee Gi-Hun\*\*\* · Ma Kang-Rae\*\*\*\*

**국문요약** 계속거주의향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소멸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주민일수록 지역을 떠나겠다는 의향을 밝힐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이동성 제약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쇠퇴와 이주의향의 관계성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한겨레21〉의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인식 조사」 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지역소멸 위기감의 영향력은 나이가 많을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지역소멸 위기, 인구감소지역, 계속거주의향,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the factors affecting residents' migration have shown that residents who feel dissatisfied with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are more likely to move to another area than those who feel satisfi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decline of the place and its impact on the intention to stay.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Han-kyoreh 21 survey of the residents who have been residing in the declining regions. The main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residents have a much higher propensity to stay as they become older. The fact that residents' staying intention tends to increase with age seems to be closely related to physical and economic constraints of older residents.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from the result that the elderly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disadvantageous environments than the young residents in the declining regions.

**Key Words:** Population Declining Region, Propensity to Stay,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lan to Stay

\* 이 논문은 2021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주저자: itsme3637@naver.com)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공동저자: dlrlglns9507\_@naver.com)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kma@cau.ac.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50.1%)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의 이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통계청, 2020). 이러한 인구 유출 현상은 최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의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었으며, 비수도권 군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역소멸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이상호, 2022). 최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주민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에 주목하여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영향을 실증해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하여 주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지역을 떠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왔다(김호·남영숙, 2017). 이와는 별도로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Lawton(1986)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젊은 사람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의 쇠퇴에 따른 위기를 느끼더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감이 다른 곳으로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주민이 느끼는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계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인 <한겨레21>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인식 조사」를 소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연구모형과 주요 변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거주민

의 계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선행연구 검토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 학계에서도 기존 계속거주의향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최일진·남황우, 2015)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실증한 바 있다(이미에·이승중, 2016; 강영웅 외, 2020; 이지은·이경은, 2020). 이러한 실증 연구에서는 계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을 크게 ‘개인 및 가구 특성’과 ‘지역 특성’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개인 및 가구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력, 소득, 거주기간 등을, 지역 특성으로는 주거, 일자리, 교통, 문화, 의료, 교육 등 ‘물리적 생활환경’과 공동체의식이나 지역정체성 등 ‘사회적 생활환경’ 등이 포함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춘 실증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sup>1)</sup> 김호·남영숙(2017)의 연구에서는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주목하여 ‘마을이 쇠퇴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마을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주민의 계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인식 요인과 계속거주의향의 상관성에 주목한 기존 연구에서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이지은·이경은, 2020; 김형준, 2021),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강영웅 외, 2020), ‘공동체의식’(김영주·유병선, 2012; 이미에·이승중, 2016; 최정신 외, 2018) 등의 요인도 검토한 바 있다.

계속거주의향이 작을수록 이동성(mobility)은 커지게 된다. 이주에 관한 신고전학과 모델에서는 거주지와 이주 희망지의 격차(e.g. 임금 격차, 자원의 격차)가

클수록 이주가 촉진되며, 이러한 이주의 결과로 인해 이주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하지만 매력적인 이주 희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Carling(2002)은 이동성이 제약되는 요인으로 빈곤한 상황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의사결정, 이주 희망지에서의 차별 가능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노화에 대한 일반적 생태이론(General ecological theory of aging)’에서는 외부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wton(1986)은 인간의 행동은 능력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인간은 외적 환경요인에 반응함에 있어서 자신의 내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적·인지적 능력은 노화 과정에서 약화되기 때문에 환경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비해 환경의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거 이동의 측면에서 계속거주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 3. 연구 방법

#### 1) 사용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한겨레21>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21년 11월 18일~12월 2일의 기간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만 19~64세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주민 생활 실태와 인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일자리와 노동 환경, 여가 생활 여건 등에 대한 만족

도, 지역소멸 위기와 수도권과의 격차에 대한 인식, 이주의향 등 모두 3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 항목을 활용하여,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지역소멸 위기감의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2) 분석모형 및 변수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계속거주할 의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 가지 선택 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항로짓모형의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아래 식에서  $y^*$ 은 관찰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의미하며,  $x$ 는 독립변수,  $\epsilon$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계속거주의향은 분석자료의 ‘3년 이내 이주 의향’에 관한 두 개의 설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주 의향은 ‘귀하는 여건이 된다면 향후 3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의향이 있습니까?’와 ‘이주하고 싶은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각 설문에 대한 응답은 ‘(1) 있다, (2) 없다’, ‘(1)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의 읍/면/동 내, (2)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 내 다른 읍면동, (3)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 외 다른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타 시군구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만 계속거주의향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존 선행연구(강영웅 외, 2020; 문경주·장수지, 2020)를 참고하여, ‘개인 및 가구 특성’과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개인 및 가구 특성에는 연령, 성별, 직업<sup>2)</sup>, 건강 상태, 장기거주 여부<sup>3)</sup>,

〈표 1〉 변수 구성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자료 출처	
종속 변수	계속거주의향		계속거주의향 있다 = 1, 계속거주의향 없다 = 0	한겨레 설문조사	
독립 변수	개인 및 가구	연령	만 나이(세)		
		성별	남성 = 1, 여성 = 0		
		직업	전업주부/학생/무직 = 0, 농업·어업·임업 종사직 = 1, 자영업/판매·서비스직 = 2, 전문직 = 3		
		건강 상태	1~5점 (매우 나쁨~매우 좋음)		
		장기거주	10년 이상 거주 = 1, 10년 미만 거주 = 0		
		학령기 자녀	학령기 자녀 있음 = 1, 학령기 자녀 없음 = 0		
		가구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 하위,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중위, 600만원 이상 = 상위		
	지역 특성	객관 지표	지역 유형	(행정구역상)읍, 면 = 1, (행정구역상)동 = 0	통계청
			권역	수도권(경기, 인천) = 1, 비수도권(그 외) = 0	
		지방정부 인프라 수준	교육 부문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의료 부문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		
일자리 부문			총인구수 대비 총종사자수 비중		
문화 부문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주관 지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학교·교육여건, (시군구 내)의료기관, 근무, 여가 생활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한겨레 설문조사	
	사회·경제적 기회 격차	1~5점 (수도권과의 격차가 작다~수도권과의 격차가 크다)			
	지역소멸 위기감	1~5점 (지역소멸 위기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지역소멸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학령기 자녀 유무, 가구월평균소득<sup>4)</sup>을 포함하였다.

지역 특성으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하였는데, 객관적 지표에는 지역 유형, 권역, 지방정부 인프라 수준(교육/의료/일자리/문화 부문)<sup>5)</sup> 등을, 주관적 지표에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사회·경제적 기회 격차’, ‘지역소멸 위기감’ 등을 포함하였다. 이 중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변수는 ‘귀하는 학교·교육 여건/거주하는 시군구 지역 내 의료기관/현재 하고 있는 일/여가 생활 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4개 설문의 응답을 평균한 값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기회 격차’ 변수는 ‘귀하께서는 수도권 또는 서울(인천, 경기 지역민의 경우) 지역 주민과 비교했을 때, 사회, 경제적 기회(일자리, 교육, 문화생활, 대중교통, 보건·의료·복지 등)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역소멸 위기감’ 변수는 ‘귀하께서는 국내에서 5년 전부터 언급되어 온 ‘지역소멸 위기’(지역간 격차 심화, 고령화, 인구 감소, 도시 기능 쇠퇴 등)를 어느

정도 체감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령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역소멸 위기감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 변수를 핵심 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청년 집단(만 19~39세)과 중·장년 집단(만 40~65세)으로 구분하여,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감 → 계속거주의향’의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연령 집단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대부분 지역의 청년기본조례<sup>6)</sup>에서만 19~3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연령 집단은 4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 4. 실증분석

### 1) 기초통계분석

지역소멸 위기감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표본 600명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계속거주의향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68%가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 내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인 및 가구 특성의 경우, 평균 연령은 44.76세이며, 남성(54%)이 여성(4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전문직(53%), 전업주부/학생/무직(25%), 자영업/판매·서비스직(18%), 농업·어업·임업 종사직(4%)의 순서대로 많았다. 건강 상태의 경우 보통 수준인 3점보다 약간 높은 3.31점으로 조사되었다. 장기거주자(76%)는 비장기거주자(24%)보다 세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월평균소득은 중위그룹(41%), 하위그룹(38%), 상위그룹(22%)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었다.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 유형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권역을 기준으로 살펴본 거주지역의 분포는 비수도권 일반 시·군(78%), 비수도권 광역시(14%), 수도권(9%)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인프라 수준을 살펴보면,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평균 0.87개소가

<표 2> 기초통계분석 결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계속거주의향		0.68	0.47	0	1	
개인 및 가구 특성	연령	44.76	11.86	20	64	
	성별	여성(참조)	0.46	0.50	0	1
		남성	0.54	0.50	0	1
	직업	전업주부/학생/무직(참조)	0.25	0.43	0	1
		농업·어업·임업 종사직	0.04	0.19	0	1
		자영업/판매·서비스직	0.18	0.39	0	1
		전문직	0.53	0.50	0	1
	건강 상태		3.31	0.76	1	5
	장기거주	비장기거주(참조)	0.24	0.43	0	1
		장기거주	0.76	0.43	0	1
학령기 자녀	없음(참조)	0.23	0.42	0	1	
	있음	0.77	0.42	0	1	

지역 특성	객관 지표	가구 월평균소득	하위(참조)	0.38	0.48	0	1
			중위	0.41	0.49	0	1
			상위	0.22	0.41	0	1
	주관 지표	지역 유형	동(참조)	0.28	0.45	0	1
			읍, 면	0.73	0.45	0	1
		권역	수도권(참조)	0.09	0.28	0	1
			비수도권 광역시	0.14	0.35	0	1
			비수도권 일반 시·군	0.78	0.42	0	1
		지방정부 인프라 수 준	교육 부문	0.87	0.31	0.1	1.7
			의료 부문	2.66	2.21	1	13.7
일자리 부문	0.44		0.11	0.3	0.9		
문화 부문	15.78		8.35	5.3	72.4		
주관 지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3.05	0.62	1	4.9	
	사회·경제적 기회 격차		3.71	0.87	1	5	
	지역소멸 위기감		3.77	0.98	1	5	

며,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평균 2.66명, 총인구수 대비 총종사자수 비중은 평균 44%,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은 평균 15.7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에 대한 주관적 지표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3.05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경제적 기회 격차는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역소멸 위기감은 평균 3.77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지역소멸 위기감을 체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 집단별 계속거주의향과 지역소멸 위기감의 평균을 비교한 분석한 결과, 중·장년 집단(413명, 68%)의 평균 계속거주의향(0.70)은 청년 집단(187명, 31%)의 평균(0.61)보다 높았으며, 그룹 간 평균차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t-검증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소멸 위기감의 평균 점수는 중·장년 집단(3.77)이 청년 집단(3.75)에서 0.02점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집단과 중·장년 집단은 지역소멸 위기감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으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응답할 확률은 중·장년 집단에서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2)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의 <Model 1-1>에서는 이항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특히 <Model 1-2>에서는 연령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감 → 계속거주의향’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 변수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Model 1-1>을 살펴보면, 개인 및 가구 특성에서는 연령, 직업, 장기거주가 계속거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계속거주의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에는 자영업/판매·서비스직 혹은 전문직 종사자인 주민이 전업주부/학생/무직인 주민에 비해 계속거주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거주자는 비장기거주자에 비해 계속거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령변수를 통제하고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할 확률이 높다는 기존 연구(Morrison, 1967; 박해궁, 2018)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지역 특성의 경우, 권역, 문화부문 인프라, 사회·경제적 기회 격차,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계속거주의

〈표 3〉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명		Model 1-1		Model 1-2			
		OR	S.E.	OR	S.E.		
개인 및 가구 특성	연령	1.014*	0.009	0.913**	0.036		
	성별(참조: 여성)	1.189	0.242	1.140	0.234		
	직업 (참조: 전업주부/ 학생/무직)	농업·어업·임업 종사직	0.460	0.239	0.439	0.230	
		자영업/판매·서비스직	0.552*	0.173	0.587*	0.187	
		전문직	0.569**	0.150	0.591**	0.159	
	건강 상태		0.890	0.127	0.940	0.136	
	장기거주(참조: 비장기거주)		2.216***	0.499	2.201***	0.499	
학령기 자녀(참조: 없음)		1.264	0.307	1.237	0.301		
가구월평균소득 (참조: 하위)	중위	1.075	0.246	1.064	0.245		
	상위	0.991	0.281	0.914	0.264		
지역특성	객관지표	지역 유형(참조: 도시지역)	0.943	0.318	0.951	0.321	
		권역 (참조: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0.327*	0.218	0.312*	0.210
			비수도권 일반 시·군	0.754	0.312	0.715	0.298
		지방정부 인프라 수준	교육 부문	0.808	0.325	0.809	0.326
			의료 부문	1.094	0.070	1.093	0.070
	일자리 부문		0.409	0.365	0.359	0.325	
	주관지표	문화 부문	0.977*	0.013	0.975*	0.013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2.658***	0.525	2.699***	0.542	
		사회·경제적 기회 격차	0.729**	0.102	0.751**	0.106	
	지역소멸 위기감		0.676***	0.077	0.200***	0.095	
지역소멸 위기감*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1.028***	0.010		
상수항		3.004	4.004	267.712**	591.875		
obs.		600		600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squared		0.1583		0.1689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자는 계속거주의향이 낮았으며, 지역 내 문화부문 인프라가 많을수록 계속거주의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기회의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계속거주의향은 낮아졌으며,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만족하는 주민일수록 계속거주의향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소멸 위기감은 계속거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계속거주의향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쇠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계속거주의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Cook et al., 2007; 김호·남영숙, 2017)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역소멸 위기감 \*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변수의 영향력을 추정된 결과,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이 높을수록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이 젊은 사람에 비해 보수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Lawton(198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령 집단별 분석

본 절에서는 청년 집단(〈Model 2-1〉)과 중·장년 집단(〈Model 2-2〉)을 구분하여, 연령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먼저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Model 2-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직업,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변수가 계속거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집단 내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계속거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주부/학생/무직에 비해 자영업/판매·서비스직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계속거주의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계속거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Model 2-2〉의 중·장년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에

〈표 4〉 연령 집단별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수명		Model 2-1 청년 집단		Model 2-1 중·장년 집단			
		OR	S.E.	OR	S.E.		
개인 및 가구 특성	연령		1.084**	0.042	1.008	0.021	
	성별(참조: 여성)		1.688	0.620	0.934	0.246	
	직업 (참조: 전업주부/ 학생/무직)	농업·어업·임업 종사직	0.294**	0.165	0.466	0.272	
		자영업/판매·서비스직			0.741	0.304	
		전문직			0.645	0.232	
	건강 상태		1.328	0.373	0.817	0.143	
	장기거주(참조: 비장기거주)		1.176	0.470	2.844***	0.804	
학령기 자녀(참조: 없음)		1.857	1.112	1.162	0.342		
가구월평균소득 (참조: 하위)	중위	0.859	0.363	1.129	0.327		
	상위	0.661	0.339	1.011	0.367		
지역특성	객관지표	지역 유형(참조: 도시지역)		0.781	0.545	1.054	0.432
		권역 (참조: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0.132	0.170	0.501	0.422
			비수도권 일반 시·군	0.291	0.258	1.041	0.503
		지방정부 인프라 수준	교육 부문	1.925	1.590	0.725	0.352
			의료 부문	1.052	0.135	1.106	0.091
	일자리 부문		0.105	0.157	0.544	0.667	
	주관지표	문화 부문	0.987	0.025	0.973	0.016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1.756*	0.560	3.680***	1.009	
	사회·경제적 기회 격차		0.813	0.203	0.767	0.138	
지역소멸 위기 체감도		0.407***	0	0.786*	0.109		
상수항		7.932	19.306	0.527	1.066		
obs.		184		413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squared		0.2179		0.1683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서는 장기거주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 장기거주와 관련하여, 장기거주한 중·장년은 그렇지 않은 중·장년보다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중·장년 집단의 계속거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청년집단의 경우 지역소멸 위기감이 더욱 크게 지역 이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 집단의 경우 지역소멸 위기감이 1점 높아질 때 청년 집단의 계속거주의향은 59%(odds ratio=0.40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의 경우 지역소멸 위기감의 1점 상승으로 계속거주의향이 21%(odds ratio=0.786)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느끼고(Gilleard et al., 2007), 혼인상태, 소득, 주거점유형태 등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일 경우 이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Preston, 1984).

## 5. 요약 및 결론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인구감소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인구감소의 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자체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인구감소 문제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핵심 원인이라는 점에서 인구유출 지역의 고령화를 심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노년층(만 65세 이상)으로 이행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면 사회적 인구유출이 촉진된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고령인구는 젊은 인구에 비해 이동성에 제약이 크다는 특징에 주목하고, <한겨레21>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인식 조사」를 활용하여 연령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변수인 지역소멸 위기감과 연령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기감이 높을수록 계속거주의향이 낮아졌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계속거주의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소멸 위기감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계속거주의향의 차이’는, 쇠퇴하는 지역에서 고연령층의 경제적, 신체적 제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거주했던 곳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관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지역소멸 위기감의 영향력을 청년 집단과 중·장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지역소멸 위기 체감도가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년집단(-59%)이 중·장년 집단(-21%)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애착, 사회·경제적 특성 등의 이유로 중·장년 집단이 청년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경향에서 기인한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중·장년층의 계속거주의향은 청년층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연령층의 특성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층은 40.2%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인구 집단이다.<sup>7)</sup> 2020년부터 중·장년층의 노년층 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새로운 고령화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경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여건의 영향력이 일반 지역보다 강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액에 비해 감소지역의 수가 많은 이유로 인구감소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쇠퇴지역에 이동성이 낮은 중·장년층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거주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연령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힘으로써,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 연령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열악해지는 생활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거주자'나 '남겨진 사회·경제적 약자'와 관련된 사회 정책적 고민을 담은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 주

- 1) 이와 관련하여 Turner(1985)는 행위의 선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어디에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도 지역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직업 변수는 여유진(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 3) 장기거주 변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에서 설명하는 '고향'의 정의와 최예슬 외(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장기거주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 4) 가구월평균소득 변수는 2021년 급여, 연금, 부수입 등을 포함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원자료에서는 100만원 단위로 구분된 9개의 범주형(100만원 미만~800만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 5)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조사 시점을 2021년으로 통일하였으나, 지방정부 인프라 수준 중 일자리 부문에 해당하는 '총인구 수 대비 총종사자 수'의 경우 2021년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가장 최근 시점인 2020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6) 광역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2021년 10월 기준)를 살펴보면,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경남 지역은 만 19~34세,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지역은 만 19~3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우리나라 중·장년(40~64세) 인구는 2020년 4월 기준 20,823,116명으로 전체 인구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

## 참고문헌

- 강영웅·이승중·이혜립, 2020, "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4(3), 107-140.
- 김영주·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 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8(6), 219-226.
- 김형준, 2021, "거주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1인 가구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도시연구」, 11(1), 23-40.
- 김호·남영숙, 2017,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지역 환경 인식이 정주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대전과 전남(나주, 영광, 영암)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30(4), 410-428.
- 문경주·장수지, 2020, "다층모형을 이용한 부산지역 중장년층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항도부산」, 39, 413-448.
- 박해금, 2018,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2), 163-174.
- 여유진, 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53-80.
- 이미애·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 Kee 6자본 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5(2), 1-28.
- 이상호, 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과 고용」, 8-21.
-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3), 1-30.

- 최정신·황정임·최윤지·한송희, 2018, “농촌지역 청년층의 이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지역생활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1(4), 195-211.
- 통계청, 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 Carling, J., 2002. Migration in the age of involuntary immobility: theoretical reflections and Cape Verdean experienc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8 (1), 5-42.
- Cook, C. C., Martin, P., Yearns, M., & Damhorst, M. L., 2007, “Attachment to “place” and coping with losses in changed communities: A paradox for aging adult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5(3), 201-214.
- Gilleard, C., Hyde, M., & Higgs, P., 2007, The impact of age, place, aging in place, and attachment to place on the well-being of the over 50s in England, *Research on Aging*, 29(6), 590-605.
- Lawton, M. P., 1986, “Older people on the move. In: *Environment and Aging*”, Center for the Study of Aging, New York, 135-150.
- Morrison, P. A., 1967, Duration of residence and prospective migration: the evaluation of a stochastic model, *Demography*, 4(2), 553-561.
- Preston, V., 1984, A path model of residential stress and inertia among older people, *Urban Geography*, 5(2), 146-164.
- Turner, J. H., 1985, The Concept of ‘Action’ in Sociological Analysis, in Seebass, G., Tuomela, R. (eds) “Social Action”, 61-87.

게재신청 2022.11.01

심사일자 2022.11.25

게재확정 2022.12.06

주저자: 유나영, 교신저자: 마강래